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응원 성사될 듯



남북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코리아)을 구성한 것과 발맞춰 남북 공동응원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뉴시스 취재 결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6·15남측위 강원본부)는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응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남북 단일팀을 이룬 여자아

이스하키 예선 3경기(2월10·12·14일)에 최대한 집중해 응원전에 나설 계획이다.

응원단 규모는 3경기 인원을 모두 합쳐 1470명 수준으로 한 경기당 500여명 정도로 계획됐다.

6·15남측위 강원본부는 지난해 4월 강릉에서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차원으로 열린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아이스하키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II 그룹 A'

단일팀 여자아이스하키 예선 3경기 집중 1500명 규모로 구성...입장권 확보 관건

대회 때 2000명 규모의 응원단을 꾸려 남북 선수들을 응원할 바 있다.

6·15남측위 강원본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20분 원주에서 응원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다음 달 6일부터 40여명 규모의 상주 응원단을 강릉에 상주시켜 공동응원을 준비할 계획이다.

공동응원 성공의 관건은 입장권을 몇 장이나 확보할 수 있는가다. 주최 측은 현재 한 장의 입장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평창조직위에 따르면 코리아팀 여자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는 관동하키센터는 휠체어석 58석을 포함해 총 583명을 수용할 수 있다.

코리아팀 예선 3경기는 모두 인터넷 판매가 매진된 상태다. 경기 당일 현장 판매용 입장권이 약간 있을 뿐이다.

평창조직위 입장권판매팀 관계자

는 "남아 있는 입장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예선전 입장권 가격은 A석 6만원, B석 4만원, C석 2만원이다.

6·15남측위 강원본부 이선경 집행위원장은 "입장권 문제는 강원도와 협력해서 해결할 것이며 응원에 필요한 예산도 강원도에서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00명 규모의 응원단을 남측으로 내려보내겠다고 우리 정부와 합의했다.

코리아팀은 B조 예선 경기를 치른다. 2월10일 오후 9시10분~오후 11시30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첫 상대 스위스와 경기를 갖는다. 두 번째 경기는 스웨덴전이다. 2월12일 열리며 시간과 장소는 첫 경기와 같다. 마지막 예선전은 속속 일본전이다. 2월14일 오후 4시40분~오후 7시 관동하키센터에서 펼쳐진다.

뉴시스



지난 25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으로 활약할 북측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대한체육회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할 당시 남측 마레이 감독과 북측 박철호 감독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

여자아이스하키, 올림픽 첫 남북단일팀

과정 매끄럽지 못했지만 전세계 이목집중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국내에서 아이스하키는 비인기 종목인 데다 입장권과는 거리가 있어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전격적인 단일팀 구성으로 이번 대회 내내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색 국면에서 정부의 '평화 올림픽' 개최 의지가 만들어낸 역사에 남을 '원 팀(One Team)'이다.

하지만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정부는 단일팀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선수단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고, 합의도 생각했다. '평화올림픽'에 매몰된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특히 20, 30대는 불공정을 논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대 대한체육회와 진천선수촌이 선수들의 합동훈련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철저히 취재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다. 2월4일 스웨덴과의 평가전이 첫 실전으로 관심을 모은다.

단일팀의 영문 머리글자는 'COR'로 정해졌다. 한국이 쓰는 'KOR'은 공식 국가명 'Republic of Korea(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줄임말이다.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DPRK'이라고 쓴다.

단일팀은 두 이름을 모두 쓸 수 없다. 그래서 고려 시절 이래 우리나라를 칭한 불어 '코레(COREE)'에서 단일팀의 명칭을 착안했다. 유니폼은 한반도기가 있는 것으로 입고 국가 대신 '아리랑'을 틀기로 했다.

스위스 스웨덴, 일본과 함께 B조에 속한 단일팀은 2월10일 스위스전을 시작으로 12일 스웨덴, 14일 일본을 상대한다.

여자와 달리 남자부는 백지선(집백) 감독의 지휘 아래 순조롭게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폴란드 대표팀을 비롯해 브라질, 러시아, 미국, 스위스 등 총 7명의 귀화 선수가 합류해 국제경쟁력을 갖췄다.

2월15일 체코전을 시작으로 17일 스위스, 18일 캐나다를 상대한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소속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아 김이 새지만 과거 NHL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참가해 아쉬움을 덜었다. 세계 2위 리그로 평가받는 러시아 대표팀인 아이스하키리그(KHL) 선수들이 참가한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남자부 랭킹 1위 캐나다와 2위 러시아, 3위 스웨덴 등이 강한 전력을 자랑한다.

앞서 올림픽 금메달 9개를 수확한 캐나다는 2010 밴쿠버, 2014 소치에 이어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소치에서 은메달을 딴 스웨덴과 3위 핀란드가 도전하는 양상이다.

여자부에선 랭킹 1위 미국과 2위 캐나다가 금메달을 다툰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가 올림픽 5연패에 도전하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두 대회 연속으로 캐나다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은메달에 그쳤다.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출범한 단일팀은 어쨌든 존재만으로 큰 의미를 준다. 앞서 남과 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북한 선수 12명이 합류하고 올림픽예선 경기당 의무적으로 최소 3명의 북한 선수를 기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한국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을 더해 35명으로 엔트리를 구성했다.

23명의 엔트리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다른 참가국들의 양해가 있었다. 경기당 출전 엔트리는 22명으로 모두 동일하다.

북한은 감독 1명을 비롯해 선수 12명, 지원인력 2명을 25일 대표팀에 보냈다. 세라 머레이(캐나다) 대표팀 감독은 박철호 북한 감독과 화합을 약속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머레이 감독은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만들었고 35개 리커 배지를 섞는 등 매길로이(북아일랜드)도 11위에서 8위가 됐다.

지난해 부상에 시달리며 우승이 없었던 매길로이는 최근 2개 대회에서 공동 3위와 준우승에 올라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매길로이를 제치고 유러피언 투어 통산 2승째를 거둔 리하오룽(중국)은 60위에서 28계단 상승하며 개인 최고인 32위에 올랐다.

더스틴 존슨(미국)이 49주 연속 랭킹 1위를 굳건히 한 가운데 존 램(스페인), 조던 스피스(미국), 저스틴 토머스(미국), 미츠야마 히데키(일본)가 변동 없이 톱5를 지켰다.

PGA 투어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 2주 동안 우승과 준우승을 거둔 기대주 임성재(19)는 11위에서 19계단 상승하며 96위를 해 처음으로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김시우(23)가 지난주보다 2계단 하락하며 42위, 강성훈(31)은 3계단 떨어진 85위를 했다. 안병훈(27)은 9계단 올라 91위에 위치했다.

단일팀에 합류한 북한 선수는 황충금(23), 이봄(23), 최정희(27), 진욱(28), 김은형(26), 유수정(23), 여승희(24), 김형미(23), 최은경(24), 황실경(21), 정수현(22), 김은정(26)이다.

단일팀은 각각 언론의 '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단일팀에 합류한 북한 선수는 황충금(23), 이봄(23), 최정희(27), 진욱(28), 김은형(26), 유수정(23), 여승희(24), 김형미(23), 최은경(24), 황실경(21), 정수현(22), 김은정(26)이다.

단일팀은 각각 언론의 '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대표팀 복귀

우여곡절 끝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노선영(29·콜핑팀)이 "출전을 결심했으니 훈련에만 집중하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24일 태릉선수촌을 나간 노선영이 29일 선수촌으로 돌아와 대표팀 훈련에 복귀했다.

노선영은 "평창올림픽에 출전하

기로 결정했으니 훈련에만 집중하겠다.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모든 분들이 응원해줬고, 출전하고 싶었던 올림픽이다. 감정에 치우쳐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많이 후회할 것 같다. 생각했던 목표대로 하려고 결심했다."

뉴시스

이승훈, 평창 1500m 주형준에 '양도'...4종목만 띈다

백철기 감독 "출전종목 너무 많아 체력 안배 때문에"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의 간판 이승훈(30·대한항공)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1500m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백철기 감독은 29일 "이승훈의 출전 종목이 너무 많다. 체력 안배 때문에 1500m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며 "5000m를 시작으로 하루 걸러 한 종목씩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1500m 출전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승훈이 중거리보다 장거리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5개 종목 중 1500m 출전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훈은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4차 대회를 통해 평창올림픽 남자 1500·5000·11m와 매스타트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승훈 김민석(19·평창고), 정재원(17·동북고)으로 이뤄진 남자 팀추월 대표

팀이 출전권을 따 이승훈이 확보한 출전권은 5장이 됐다.

5개 종목 모두 나설 예정이던 이승훈은 주종목에 한층 집중하기 위해 1500m 출전을 포기하게 됐다. 이승훈은 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 팀추월도 메달 가능성이 있다. 5000m와 11m는 이승훈이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각각 은메달, 금메달을 딴 종목이다.

이승훈 대신 주형준(27·동두천시청)이 남자 1500m에 나선다.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한 주형준은 극적으로 평창 무대를 밟게 됐다.

지난해 10월 2017~2018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대표 선발전 남자 1500m에서 이승훈, 김민석에 이어 3위에 오른 주형준은 월드컵 1~4차 대회에서 남자 1500m 랭킹 38위에 그쳐 랭킹 상위 36명에 주어지는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김민석이 랭킹 10위로 남자 1500m 출전권을 딴 가운데 이승훈이 출전권을 포기하면서 차순위인 주형준에게 출전권이 넘어가게 됐다.

개인 종목 출전권을 확보한 주형준은 남자 팀추월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뉴시스

타이거 우즈, 세계랭킹 108계단 경추

539위...1년만에 복귀한 정규 대회 공동 23위 차지



돌아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계랭킹은 100계단 이상 경추 뛰었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우즈는 지난 주 647위에서 108계단 상승한 53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20일 랭킹에서 1198위까지 추락했던 우즈는 이번 대회인 '하어로 월드 챔피언'을 완주하며 12월 첫째 주 랭킹에서 668위

에 올랐다.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을 통해 1년 만에 정규 대회에 복귀. 첫 통과는 물론 공동 23위를 차지하며 부활 가능성을 보였다.

우즈는 2개월 동안 단 2개 대회를 통해 무려 654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했다. 다음 달 중순 '제네시스 오픈'을 시작으로 연속해서 대회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랭킹을 끌어 올릴 전망이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1박2일에 걸친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한 제이슨 데이(호주)가 14위에서 10위가 되며 톱10에 재진입했다.

데이는 2015년 5승, 2016년 3승을 거두며 세계랭킹 1위에 등극, 무려 51주간 1위를 지키기도 했다.



개·폐회식장인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 설치된 성화대. 하안천으로 가려져 있다.

로이터통신, 평창 개최식 취재 불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보도한 로이터 통신의 개최식 취재를 불허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29일 0시30분께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사진을 보도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항의하자 로이터는 이날 오전 9시 21분 사진을 삭제했다.

올림픽 개·폐회식은 철저히

정화연습 사진 배포 한 탓 촬영한 기자 AD카드 박탈

개 비밀에 부쳐진다. 올림픽을 취재하는 언론사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IOC는 로이터의 개최식 취재와 사진촬영 패스 발급을 불허했다. 점화 사진을 촬영한 기자의 올림픽 취재 AD카드도 박탈했다.

IOC는 로이터의 사진을 보도에 활용한 국내 언론사에게도 이날 오후 3시까지 삭제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조직위는 "개·폐회식, 올림픽 대회와 관련해 IOC와 조직위의 비보도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와 해당 언론사 기자에 대해 올림픽 대회 취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 www.j-honam.com
지역구급·민생장소·정문지킴이

湖南新聞
전인 062/224-5000 팩스 062/222-5546